

ASEAN CULTURE HOUSE
MONTHLY
2021 11 VOL.51

월간 아세안 문화원

Fashion



Women dressed in traditional Indonesian clothing



삶과 역사, 문화가 담겨 있는 전통 복식

Traditional Clothing as an Embodiment of Life, History, and Culture

아세안 각국의 고유한 아름다움

The Unique Beauty of ASEAN Countries

히잡리스트와 모디스트 패션

The Hijabista and Modest Fashion

KONNECT ASEAN 현대판화전: 떠오르다

KONNECT ASEAN Contemporary Print Show: Arise

AKF 5기 팀 미션, 아세안 디저트 트럭

AKF 5th Team Mission, ASEAN Dessert Truck



긴 치마 형태로 미얀마를 대표하는 전통의상, 론지
The longyi is a long, skirt-like item of traditional clothing that is representative of Myanmar.

삶과 역사, 문화가 담겨 있는 전통 복식

Traditional Clothing as an Embodiment of Life, History, and Culture

모든 기고문의 내용은 <월간 아세안문화원>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rticle may not reflect the opinion
of the editorial board of the ASEAN Culture
House Monthly.

패션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전통 복식에는 고유의 삶과 역사,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 베트남 여인 김과 미군 장교 크리스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인 김이 입고 있던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보면 묵선에서는 동양적인 느낌을, 입체적인 재단에서는 서양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식 ‘크바야’도 15~16세기부터 입기 시작해 지역과 관습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 영향이 인접 국가로도 전파되어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승무원의 유니폼은 물론, 싱가포르항공, 말레이시아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으로 활용되며 전 세계를 비행하고 있다. 최근 걸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솔로 앨범 <라리사> 뮤직비디오에서 태국의 전통 복식을 대표하는 모자 ‘랏 끌라우’와 의상 ‘쑤타이’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각국의 전통 복식은 과거를 넘어 현재까지도 그 명성이 이어지며 발전하는 중이다.

글 박희정 백석문화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Based on the notion that fashion is a mirror that reflects a particular era, the traditional clothing of ASEAN countries are an especially detailed representation of history, culture, and daily life. The musical Miss Saigon, which depicts the love between Kim, a Vietnamese woman, and Chris, a US G.I. sergeant, is no exception: the áo dài, a traditional Vietnamese dress frequently worn by Kim, blends an Asian-inspired collar with tailoring that is distinctly Western. The Indonesian kebaya, which began being worn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is evolving according to changing customs. Due to its strong influence in neighboring countries, the kebaya is now literally traveling the world as the inspiration for flight attendant uniforms, not only for Garuda Indonesia but also for Singapore Airlines and Malaysia Airlines. Meanwhile, Lalisa, a member of the South Korean girl group BLACKPINK, recently gained attention by wearing a rad klao, a traditional Thai headpiece, and chut Thai, a dress whose name literally means “Thai outfit,” in a music video for a track off her solo album Lalisa. As such, the traditional clothing of each ASEAN country remains relevant in the 21st century by adapting to current trends and needs.

Prof. Park Hee Jeong Division of Design, School of Art, Baekseok Culture University

KONNECT ASEAN 현대판화전: 떠오르다

KONNECT ASEAN Contemporary Print Show: Arise

오는 11월 11일, 아세안문화원과 아세안재단(ASEAN Foundation)이 함께 기획한 ‘KONNECT ASEAN 현대판화전: 떠오르다’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전통 판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다채롭고 새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관람객들은 각국 작가들의 경험과 철학이 담긴 작품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고민과 열정을 만날 수 있다.

내년 1월,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어, 현대판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www.ach.or.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자.

한편, 이번 전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ASEAN-ROK Cooperation Fund)이 후원하는 한-아세안 교류사업 ‘커넥트 아세안(KONNECT ASEAN)’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Beginning on November 11, the KONNECT ASEAN Contemporary Print Show: Arise, hosted jointly by the ACH and the ASEAN Foundation, will showcase various print-inspired artworks by young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and the 10 ASEAN countries. Through these artworks, which each embody the personal experiences and philosophy of their creator, viewers will have an up-close encounter with the talent, thoughts, and dreams of young artists that are shared across national borders. Furthermore, a workshop scheduled for January 2022 in conjunction with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prints for the general public. Further information on the workshop will soon be made available through the ACH’s website (www.ach.or.kr).

The exhibition is being offered as part of KONNECT ASEAN, an ASEAN-ROK exchange project sponsored by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



기간 2021. 11. 11.~2022.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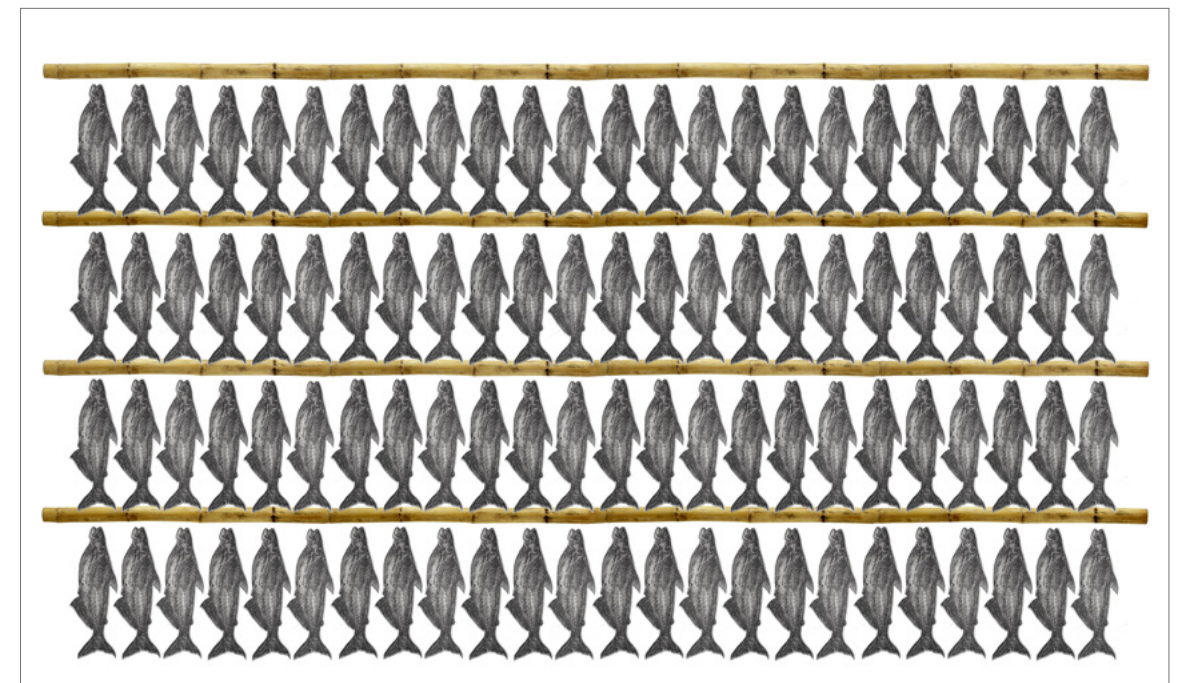
장소 기획전시실(1층)

문의 051-775-2000

Period Nov. 11, 2021-Feb. 13, 2022

Venue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

Inquiries 051-775-2000



© 2019. Adi Sundoro. Behind The Fishes. Letterpress print on board with die-cut, bamboo stick, fishing hook, wire

2021 아세안 마켓

2021 ASEAN Market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아세안문화원 야외 광장과 주차장에서 아세안 마켓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각국의 현지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아세안 국가에서 온 한국 거주 이주민들이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공예품과 함께 선보인 음식과 차, 커피 등은 아세안 국가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아세안 마켓은 판매 부스 외에도 아세안 국가의 식물을 심는 식재 체험, 향을 만드는 조향 체험, 라탄 공예 체험, 메콩 커피 시음, 푸드 디렉터의 쿠킹 클래스 등 흥미로운 현장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이번 마켓은 물리적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 토크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각양각색의 물건이 가득했던 2021 아세안 마켓으로,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이 아세안 국가의 문화와 생활, 사람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From October 8 through 10, the 2021 ASEAN Market was held in the ACH's outdoor plaza and parking lot. The market, which drew significant attention for its realistic replication of outdoor markets in various ASEAN countries, was especially meaningful this year due to sales by ASEAN citizens residing in Korea of products imported from their home countries. The handicrafts, foods, tea, and coffee on offer gave Korean visitors the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albeit indirectly, daily life in an ASEAN country.

In addition to the market's various shop booths, a wide range of on-site events attracted visitors, including potting ASEAN plants, perfume making, rattan craft making, taste testing Mekong coffees, and cooking classes taught by food experts.

For those who were unable to visit in person due to COVID-19, this year's market was also made partially available online through live commerce, live streaming, and a "talk concert" to encourage participation from throughout Korea. We hope that the 2021 ASEAN Market, which offered a rich array of events and products, gave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alike the chance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s, lifestyles, and peoples of ASEAN.



AKF 5기 팀 미션, 아세안 디저트 트럭

AKF 5th Team Mission, ASEAN Dessert Truck

지난 10월 1일과 2일, 2021 한-아세안 차세대 네트워크(ASEAN-Korea Futurist) 5기 참가자들이 '아세안 디저트 트럭'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들에게 아세안 국가의 디저트를 접하며 잠시나마 아세안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소소한 행복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저트 트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마르타박 마니스, 싱가포르의 카야 토스트, 말레이시아의 테타릭, 베트남의 카페 쓰어다, 라오스의 남완 등 아세안 국가의 대표 디저트를 소개하였다. 또한 아세안 전통놀이, 여행 가고 싶은 아세안 국가 선정, 추억의 뽑기, 물렛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국가별 음식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저트를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이 시간은 디저트를 선물 받은 우리 국민과 주한 외국인뿐 아니라, 행사를 준비한 AKF 5기에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AKF 5기 참가자들은 "아세안 디저트를 만들고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다소 힘들 때도 있었지만, 팀원 간 우애도 쌓고 아세안 국가에 대해 좀 더 친근감을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청년작당소 등 부산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취식을 금하고 개별 포장으로 디저트를 전달하여 아세안 문화를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On October 1 and 2, the fifth 2021 ASEAN-Korea Futurist team operated their "ASEAN Dessert Truck." The purpose of the food truck event was to offer desserts from ASEAN countries to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of Korea to give them the sense of having "traveled" to an ASEAN country amid ongoing travel bans caused by COVID-19. The food truck featured some of the most famous desserts of ASEAN, including *martabak manis* from Indonesia, *kaya toast* from Singapore, *teh tarik* from Malaysia, *cafe sua da* from Viet Nam, and *nam wan* from Lao PDR. These were offered alongside various events, including traditional ASEAN games, a roulette giveaway event, a *ppopki* game (Korean-style lottery), and putting stickers on the name of an ASEAN country that they wish to visit.

The food truck went beyond simply introducing the foods of individual ASEAN countries, giving visitors the chance to taste these desserts while enjoying the cultural ele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m. The two-day event turned out to be a special experience not only for visitors but for the members of the fifth AKF team as well. In particular, AKF participants noted that, while it wasn't easy learning to make des-

serts from ASEAN countries and explain them to visitors with little background on Southeast Asia, the food truck strengthened their team bond and made them more knowledgeable about ASEAN countries.

The food truck event was held in various parts of Busan, including in front of Busan Multicultural International School,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Youth Jaktangso. Visitors were able to experience ASEAN culture safely through the food truck's takeout-only policy.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ere strictly adhered to on both days.





아세안 각국의 고유한 아름다움

전통 복식에서 아세안 각국이 가진 독특한 미를 발견할 수 있다. 변화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전통 복식의 정체성을 살펴본다.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하얀 쌀국수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하얀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베트남어 ‘áo dài’는 ‘옷’을 의미하는 áo와 ‘길다’를 의미하는 dài가 합쳐진 말이다. 이름 그대로 길이가 긴 상의와 하의로 이뤄져 있다. 보통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흰색 아오자이를 입고, 결혼한 여자는 화려한 색의 아오자이를 입는데, 베트남 거리의 하얀 아오자이 물결은 이러한 전통이 반영된 결과다.

인도네시아의 ‘크바야’는 비단같이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인데, 단추나 지퍼 같은 고정장치 없이 브로치를 사용해 여미는 것이 특징이다. 크바야는 과거 자바섬에 위치했던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의 궁정 복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사롱(sarong), 바틱(batik), 송켓(songket) 같은 전통적인 염색 옷감과 함께 착용한다. 초기에는 성스러운 옷으로 여겨져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네덜란드 식민 지배하에 유럽 여성들이 정장 드레스로 입으면서 대중화되었고, 소재 또한 수가 놓인 실크로 변하면서 더욱 화려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전통 복식에 있어 변화를 거듭했다. 11세기 초 롬부리(Lopburi) 지역이 크메르 제국의 영향을 받았을 당시에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 형식의 의상을 주로 입었다. 캄보디아에서 이 의상은 여성용은 ‘삼포트’, 남성용은 ‘사롱’이라 불린다. 이후 아유타야(Ayutthaya) 왕조에 이르러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쑤타이’로 정착된다. 요즘 쑤타이는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 때 많이 입는다. 어깨를 드러낸 긴 원피스 스타일로 어깨를 감는 긴 천인 싸바이와 연결되어 있다. 여성미를 강조한 디자인이라 화려한 장신구와도 잘 어울린다.

라오스의 전통 복식은 ‘썬(sinh)’이라고 불리는 치마가 대표적이다. 실크나 면으로 만들며, 태국의 쑤타이처럼 중요한 행사 때 주로 입는다. 또한 미얀마는 긴 치마 형태의 ‘론지’를 남녀 모두 전통의상으로 착용한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글 박희정 백석문화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The Unique Beauty of ASEAN Countries

The traditional clothing of ASEAN embodies the unique aesthetic of each member state. Its identity is simultaneously timeless and constantly changi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for most people when thinking of Viet Nam is white pho noodles. Another image is of women wearing white áo dài. The Vietnamese word áo dài is a compound of áo (“clothing”) and dài (“long”). As its name suggests, the áo dài is made up of a long dress and trousers. The notion of “seas of white áo dài” on the streets of Viet Nam is rooted in the custom of unmarried women wearing white áo dài and married women wearing áo dài in bold colors.

The Indonesian kebaya is a women’s blouse made with a soft, lightweight fabric. One interesting feature is that it’s fastened only with a brooch instead of buttons or a zipper. The kebaya, which was born from court attire of the Majapahit Kingdom of eastern Java, is often worn along with clothing dyed in traditional methods, such as sarong, batik, and songket. In its early years, the kebaya was regarded as sacred clothing and therefore only permitted for members of the royal family. During Dutch colonial rule of Indonesia, European women popularized the kebaya by adopting it as formalwear. It is also during this time that the kebaya became much fancier through the use of embroidered silk.

As in Viet Nam and Indonesia, the traditional clothing of Thailand underwent significant change throughout its history. In the early 11th century, when Lopburi was incorporated into the Khmer Empire, knee-length skirts similar to the women’s sampot and men’s sarong of Cambodia were popular due to Khmer influence. In the 14th through 18th centuries, during the rule of the Ayutthaya Kingdom, the chut

Thai as we know it today was created based on multiple international influences. Worn for important occasions such as weddings, the chut Thai is a long dress that reveals one shoulder and is connected to a sabai, a long sash that covers the other shoulder. The chut Thai is best paired with elaborate jewelry due to the figure-hugging drape of its fabric. The staple item of traditional Lao clothing is a tube skirt known as the sinh. Usually made from silk or cotton, the sinh is worn, like the chut Thai, for important occasions. In Myanmar, men and women wear a longyi, a long, wraparound, cloth skirt. The length and material protect the wearer from the sun’s rays while ensuring good ventilation in Myanmar’s hot and humid climate.

Prof. **Park Hee Jeong** Division of Design, School of Art, Baekseok Culture University



히자비스타와 모디스트 패션

The hijabista and modest fashion

패션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사는 이들이 입고 즐기기에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기호가 된다. 지금까지 무슬림 여성의 패션은 이슬람의 독특한 종교적이고도 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주류 패션에 속하지 못했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Hijab)은 머리와 목, 가슴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데, <코란>에 근거하는 오래된 전통 복식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의 패션스타이자 트렌드 리더로 일컬어지는 '히자비스타(Hijabista)'가 각광받고 있다. 히잡(Hijab)과 패션리스타(Fashionista)의 합성어로 히잡을 둘러치지만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히자비스타들의 개성 있고 멋진 히잡 착용법과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SNS로 실시간 공유되며 동남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모디스트 패션(Modest Fashion)'은 무슬림 전통 복식에 기반하여 무슬림 친화적이며 율법에 부합하는 패션을 말한다.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으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모디스트 패션은 히자비스타와 함께 주목받으며 동남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에게 현대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도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무슬림 여성에게 히잡 착용은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미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 젊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종교와 패션의 균형은 곧 행복을 의미하며 히잡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한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히잡의 의미 역시 변화하고 있다.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남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은 무슬림 의상을 패션으로 받아들이며 전통과 현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게 다채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글 박혜원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박혜원
모디스트 패션의 히자비 A hijabi wearing an outfit inspired by modest fashion.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무슬림 히잡 패션에 대해 알아본다.

The centuries-old hijab is making new wave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world.

Fashion is an accessible and accurate barometer of social change due to its nature as something that is worn and enjoyed in the era in which we live (and this very moment!). Until recently, Muslim women's clothing was far removed from mainstream fashion because of Islam's unique cultural and religious traits. The hijab, which is used by Muslim women to cover the head, hair, neck, and breasts, is an age-old item of religious attire that is rooted in the Quran. Today, the Southeast Asian Muslim community, mostly in Indonesia, is being taken by storm by the "hijabista," a term that refers to women who wear a hijab and are very fashionable and trend-setting. The ways in which hijabistas wear and accessorize their hijabs is shared in real-time with consumers via social media, resulting in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ashion of Muslim women throughout Southeast Asia.

Another Islam-fueled trend is "modest fashion," which refers to fashion that is based on traditional Muslim clothing and is aesthetically pleasing while abiding by the Quran's directions on modesty. Modest fashion, which aims to minimize bodily exposure and avoid excessive form-fitting, is quickly gaining popularity alongside the hijabista. Perhap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oday's modest fashion is that it offers a new sociocultural context for fashion for Southeast Asian Muslim women living in the current age. For middle-class, urban-dwelling Muslim women, the hijab expresses two things: firstly, their high social and economic standing, and secondly, aesthetic diversity. For young Muslim women, who regard the hijab as a fashion item, the balance between religion and fashion translates into a satisfying quality of life. Over centuries, the meaning embodied by the hijab has changed significantly. Today, Muslim women in Southeast Asia accept Quran-abiding clothing as a fashion trend, using it to express themselves in creative ways amid the crisscrossing waves of tradition, the modern, and Wester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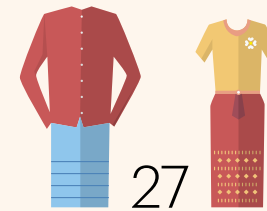
Prof. **Park Hye-won**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University

아세안 국가의 전통의상

Traditional clothing of ASEAN

아세안 국가의 전통의상을 통해 각국의 역사와 전통, 기후와 환경을 알아본다.

Let's learn about the history, customs, and climate of ASEAN member states through their traditional clothing.



미얀마의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입는 스커트 형태의 '론지'는 연평균 27℃에 달하는 고온다습한 기온에서 통풍이 잘 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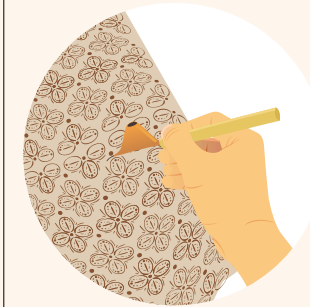
The *longyi*, a wrap-around skirt worn by people in Myanmar regardless of gender or age, is made of breathable material and protects the wearer from intense sunlight—two traits that are crucial in the country's hot and humid climate, which has an average annual temperature of 27 degrees Celsius (80 °F).



2009

인도네시아 '바틱'은 고유의 문화적 정통성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In 2009, Indonesian *batik* was named by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recognition of its rich cultural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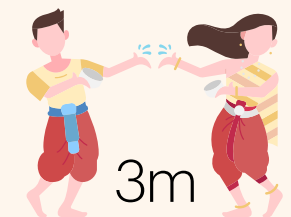


* 크라마: 캄보디아의 전통 스카프
*Krama: traditional Cambodian scarf

1,149.8m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에서 2만 3,000명 이상의 인원이 6개월 동안 짠 1,149.8m의 '크라마'가 세상에서 가장 긴 스카프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In 2018, a 1,149.8 meter-long *krama** was registered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world's longest scarf. It was created by over 23,000 people, over a period of six months, at the Royal Palace of Cambodia in Phnom Penh.



18

베트남 '아오자이'는 신체 사이즈를 18군데를 측정해 만들어 몸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몸을 보다 아름답게 드러내게 한다.

The Vietnamese *áo dài* is designed to both fit well and accentuate the wearer's physique by taking 18 different measurements.

태국의 '쥬크라벤'은 긴 옷감을 허리에 고정하고 남은 부분으로 앞쪽에서 주름을 잡은 뒤 다리 사이로 넣어 고정하는 것으로 길이가 무려 3m에 달한다.

Thailand's *jong kraben* is worn by wrapping a long sheet of fabric around the waist, fixing it in place by tying a knot, putting the remaining section between the legs (after pleating it in the front), and fixing it in place a second time at the back of the waist. A *jong kraben* cloth can be as long as three meters!

싱가포르 다문화 골목 기행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싱가포르의
구석구석을 탐방한다.

영국이 통치한 19세기, 국적에 따라 거주하는 동네를 지정해준 역사의 잔상이 남아 싱가포르는 여러 국가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골목들을 걷다 보면 하루에 서너 도시쯤은 단숨에 만날 수 있는 것. 리틀 인디아에서 특유의 향신료 내음을 맡고 아랍 스트리트에서 화려한 패턴에 눈길을 빼앗긴 다음 차이나타운에서 허기를 달래면 이보다 더 완벽한 골목 기행은 없을 것이다.

인도의 축소판, 리틀 인디아

사키아무니 부다 가야 템플(Sakya Muni Buddha Gaya Temple)은 싱가포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불교 사원이다. 태국인 승려 부치사라가 건립해 태국 건축양식의 색채가 강하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면 높이 15m, 무게 3,000t의 거대한 불상이 있으며 주변에 코끼리 모양의 힌두신 상이 공존하는 풍경이 독특하다. 내부에 1,000여 개의 법등이 달려 있어 '천등사'라고도 불리며, 밤이면 등불이 장관을 이룬다. 인도를 고스란히 옮겨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세랑군 로드(Serangoon Road)는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사람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다. 인도 전통의상과 실크 제품, 커리 가루 등을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이 즐비하다.

이국적인 아랍 스트리트

아랍 스트리트의 랜드마크 술탄 모스크(Sultan Mosque)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슬람 사원으로 무슬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술탄 모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자.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술탄 모스크 옆에 자리한 말레이 헤리티지 센터(Malay Heritage Centre)는 싱가포르 초대 술탄이 160여 년 전에 살던 궁전을 개조한 박물관이다. 근대 이전에는 작은 항구에 불과했던 아랍 스트리트의 역사를 포함해 말레이 사람들의 싱가포르 이주와 정착, 생활, 문화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무료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며, 상설 전시 외 다양한 특별 전시가 펼쳐진다.

이색적인 차이나타운

스리 마리암만 템플(Sri Mariamman Temple)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이다.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보호의 여신 마리암만을 기리는 곳으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 경과 함께 이 땅을 처음 밟은 남인도 상인들이 세웠다. 원래 인도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으나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후에도 사원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10월 말에는 수천 명이 불 위를 걷는 의식인 티미티(Theemithi)가 열린다. 파고다 스트리트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Chinatown Heritage Centre)는 싱가포르에 이주한 중국인들의 이민사를 총망라한 박물관이다. 초기 정착민들의 주거지 등 싱가포르의 1950년대를 생생하게 재현해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A trip through Singapore's multicultural streets

Exploring the many cultures that color Singapore's streets
offers many things to see, eat, and experience.

Singapore's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footprint of many countries is due to the lasting vestiges of British colonial rule in the 19th century, during which districts were divided by nationality. The districts are so varied that, after a day of walking, you may feel as if you have visited several different cities. One recommended course is to start with the spices of Little India, see the brilliant patterns of Arab Street, and wrap up with some delicious food in Chinatown.

Little India

Sakya Muni Buddha Gaya Temple, Singapore's largest Buddhist temple, draws heavily on Thai architectural styles, having been designed by Thai monk Vutthisara. The first thing visitors notice once they enter is the massive Buddha statue, which is 15 meters high and weighs 3,000 tons. Interestingly, a statue of the Hindu elephant deity, Ganesh, stands nearby. It is also called "temple of 1,000 lights" due to the over 1,000 Buddhist lanterns hanging in its inner courtyard that create an especially beautiful sight by night. Serangoon Road, which seems to have been air-lifted to Singapore from India, is inhabited by many people from an Indian background and full of shops that sell traditional Indian clothing, silks, and curry powder.

The striking sights of Arab Street

Sultan Mosque, a major landmark of Arab Street, is Singapore's largest and oldest mosque that serves as the center of the local Muslim community. Upon application, guided tours of the mosque are offered in Chinese, English, Malaysian, and even Korean. The Malay Heritage Centre, which is right next to Sultan Mosque, is a museum that is a renovated version of a palace that Singapore's first sultan lived in approximately 160 years ago. It offers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the Arab Street neighborhood, which was a small port city until the advent of the modern era, in addition to a sweeping view of the history of the Malay people's settling in Singapore, as well as their daily customs and culture. The Malay Heritage Centre offers free guided tours, a permanent exhibition, and various special exhibitions throughout the year.

Vibrant Chinatown

Sri Mariamman Temple is Singapore's oldest Hindu temple. Dedicated to Mariamman, a goddess of protection who cures illnesses and infectious diseases, the temple was built by Sir Thomas Stamford Raffles, who is known as the founder of modern Singapore, and the South Indian merchants who came to Singapore with him. Chinatown was originally a district for Indians; after it was changed to its current identity, the temple remained and is preserved to this day. In late October, the temple holds its annual Fire Walking Festival (Theemithi), in which thousands of devout Hindus walk barefoot on burning coals. The Chinatown Heritage Centre, which is located on Pagoda Street, is a museum that covers everything about the history of Chinese immigration to Singapore. The beautifully-restored shophouses and displays of early immigrant housing from the 1950s make visitors feel as if they stepped back in time.



필리핀에서 온 농구 유망주 사무엘 준틸라

필리핀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농구 유망주 사무엘 준틸라 씨는 오랜 꿈을 한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KBL 신인왕에 오른 오재현 선수와 맞붙어 화려한 드리블과 남다른 슛 거리를 선보이며 국내 농구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농구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는 그에게 꿈과 일상에 대해 물었다.

Rising Basketball Star from the Philippines: Samuel Juntilla

Samuel Juntilla, a Filipino youth basketball league star who was a member of the country's under-19 national team, continues to play basketball professionally today in Korea. In April, Juntilla made a name for himself among Korean basketball fans through his elaborate dribbling and impressive shooting against KBL talent Oh Jae-hyeon. For our November issue, *ACH Monthly* asked Juntilla, whose passion for basketball is evident both on and off the court, about his dreams and life in Korea.



안녕하세요! <월간 아세안문화원> 독자들에게 본인이 소속된 농구팀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와 농구단 ‘글로벌프렌즈’에서 활동해온 사무엘 준틸라입니다. 글로벌프렌즈는 2012년부터 기업의 후원을 받아 운영돼온 ‘다문화 청소년 농구단’이에요. 훈련도 열심히 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농구뿐 아니라 취미와 친구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서 농구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따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네 살 때부터 농구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 필리핀에 있을 땐 마땅한 농구대가 없어서 페타이어를 농구대 삼아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놀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농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2017년 11월 서울시민체육대회 농구 종목에 용산구 대표로 출전해 우승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사실 경기에 임했을 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웃음) 농구 할 때는 이겨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잘 하지 않아요. 부담만 될 뿐이어서 뛰는 동안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죠. 우승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니 승리가 더 값지고 특별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궁금해요.

한국에서 농구를 하면서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한국 생활도 예상보다 더 길어졌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듯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가 농구하는 모습을 보고 꿈을 찾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Hello! Please introduce your team to the readers of *ACH Monthly*.

An-nyeong-ha-sae-yo! My name is Samuel Juntilla. I'm from the Philippines and am currently part of Global Friends, a basketball league for teen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received corporate sponsorship since 2012. I balance a tough, tightly packed training regimen with mentoring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in basketball. I also encourage multicultural teens to have hobbies and make friends.

Why did you choose to pursue basketball?

There was no big “moment of realization.” I got started in basketball very gradually—I began playing when I was just four. As a child in the Philippines, I had no basketball court, let alone a basketball stand. I remember using discarded tires as a “stand” to play with my friends. All my life, I've always been happiest when I'm playing basketball.

You were the Yongsan-gu representative for basketball at Seoul Citizen Sports Day in November 2017. How did it feel to win?

I actually had no thoughts at all while playing (laughter). I usually don't approach a game or tournament with the conviction that I have to win. Pressuring myself on winning only makes me stressed out and unable to play very well, which is why I focus on enjoying my time on the court. That being said, it felt so good to win that day. It was an even more meaningful victory because I felt that it was the outcome of practicing and training hard with my friends.

What is your future goal?

I formed a lot of valuable relationships while playing basketball in Korea and have ended up living in this country for much longer than I expected. I want to be an athlete who has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Just as I looked up to basketball players as a child, if even one person gains self-confidence and a dream after watching me play, I would be very happy.

이슬람에 대해 한 걸음 더 친근하게 부산 이슬람 사원

Busan Al-Fatah Masjid: Making Islam more accessible in Korea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이슬람 사원이 위치하고 있다. 멀리서도 흰색 돔이 이슬람 사원임을 한눈에 드러낸다. 이곳은 지난 1980년 9월 문을 열었으며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무슬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1층에 방문하면 안내 책자는 물론 담당자가 상주하여 국내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알아볼 수 있다. 예배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의 중심인 예배당에도 방문해볼 수 있다. 2층은 남자 신도, 3층은 여자 신도가 이용하는 곳으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예배당은 정교한 문양이 그려진 돔 형식의 천장과 색채가 화려한 카펫으로 꾸며져 있다.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예배당은 터키의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의 복원 작업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솜씨다. 곤충 날개 가루로 만든 특수 도료와 금가루 등을 이용해 전통 기법에 맞게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돔은 심미적으로도 훌륭할 뿐 아니라 사원 내부의 소리를 반사해 확대시켜 소리가 넓게 울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이슬람 사원 인근에는 할랄 푸드 레스토랑 두 곳도 자리하여 이슬람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필수 코스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은 부산에 한 곳을 비롯해 서울중앙서원, 경기광주성원, 전주성원 등 전국에 총 20곳이 존재한다.

Busan Al-Fatah Masjid, the second Islamic mosque built in Korea, is located in the Namsan neighborhood in Busan's Geumjeong district. Even from a distance, its white dome alerts passersby to the fact that the building is a mosque. Since opening its doors in September 1980, Busan Al-Fatah Masjid has served as a spiritual resting place for both Korean and foreign Muslim residents of Busan.

At the mosque's first floor, visitors can find an informational pamphlet and an employee at the entrance who is more than happy to answer questions and provide an easy-to-follow explanation of Islam, which is still not very widely understood in Korea. Outside of regular prayer times, visitors are welcome to step inside the central prayer area, called *musalla*, which is located over the second and third floors. (Entering a prayer area must be don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osque employee. The second floor is for men only, while the third floor is for women only.)

The prayer area is characterized by the domed, exquisitely-decorated ceiling and a bright blue carpet, the captivating beauty of which can be credited to the expert-led construction team, many of whom were part of the renovation team for the Sultan Ahmed Mosque in Turkey. According to mosque staff, immense attention was devoted to the following of traditional methods, such as using gold powder and special paints made from ground-up insect wings. The mosque's beautiful dome is not only an artistic masterpiece but also an acoustic device that reflects and magnifies the sounds from the prayer area so that they resonate.

Those who visit Busan Al-Fatah Masjid usually also stop at one of two nearby halal restaurants to extend their experience of Islamic culture through food. Currently, other than Busan Al-Fatah Masjid, there are 19 mosques in Korea, including the Seoul Central Mosque, the Gwangju Mosque, and the Jeonju Mosque.

술술~ 말레이어 한마디

Talk! Talk! Malay

아빠 까바?(안녕하세요!) 여행지에서 짧게라도 현지어로 말을 건네면, 그 나라의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헤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Apa khabar? (Hello!)

Being able to say a few sentences in the local language when traveling can serve as a foothold for gaining an understanding of a country's culture. For the November issue of ASEAN Culture House Monthly, let's learn expressions that can be used when parting with someone.

헤어질 때 사용하는 말레이어

Malay for parting with someone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It was nice meeting you.
Gembira dapat berjumpa dengan anda.
금비라 다했 브르쭌뻘 등안 안다.

네. 그간 감사했습니다.
Glad to meet you, too!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Saya juga.
Terima kasih untuk semuanya.
사야 주가. 드리마 까시 운독 스무야냐.

무엇을 타고 돌아가시나요?
How will you get back?
Apakah jenis kenderaan yang akan anda gunakan?
아빠까 즈니스 곤다라안 양 아깐 안다 구나칸?

택시를 탈 예정입니다.
I will take a taxi.
Saya akan menaiki teksi.
사야 아깐 므나이끼 텍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Can we meet again someday?
Bolehkah kita berjumpa lagi?
볼레까 끼따 브르쭌뻘 라기?

그럼요. 연락드리겠습니다.
Certainly, I'll contact you.
Ya, sudah pasti. Saya akan menghubungi anda.
야, 수다 빠스띠. 사야 아깐 므후붕이 안다.

잘 지내세요.
Stay safe!
Selamat tinggal!
슬라맛 땡갈!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김예겸 교수 /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하나피 후신 교수
Translated and proofread by Prof. KIM Yekyoum (Department of Indonesian and Malaysi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Prof. Hanafi Hussin (Universiti Malaya, Malaysia)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필리핀 만상절 Philippines: All Saint's Day	2	3	4 싱가포르 디파발리 Singapore: Deepavali	5	
		9 캄보디아 독립기념일 Cambodia: Independence Day	10	11	12	13
	14	15	16	17 미얀마 디자웅문 보름달 Myanmar: Full Moon of Tazaungmone	18 미얀마 디자웅문 보름달 Myanmar: Full Moon of Tazaungmone	19 캄보디아 물축제 Cambodia: Water Festival
				캄보디아 물축제 Cambodia: Water Festival	라오스 맛무양축제 Lao PDR: That Luang Festival	20 캄보디아 물축제 Cambodia: Water Festival
21	22	23	24	25	26	27
2021.11.11.~2022.02.13. KONNECT ASEAN 현대관화전: 떠오르다 기획전시실(1층)						
Nov. 11, 2021-Feb. 13, 2022 KONNECT ASEAN Contemporary Print Show: Arise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						9.6-12.1 2021 하반기 아세안 언어강좌 온라인 Sep. 6-Dec. 1 ASEAN Language Courses Online
28 미얀마 국가기념일 Myanmar: National Day	29 미얀마 국가기념일 Myanmar: National Day	30 필리핀 보니파시오의 날 Philippines: Bonifacio Day				
‘한국 속의 아세안, 아세안 속의 한국’ 벽면 사진전 ‘ASEAN in Korea, Korea in ASEAN’ Hallway Photo Exhibition 복도(2층) Corridor (2F)				아세안문화원 온라인 전시 ACH Online Exhibition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 ACH Website(www.ach.or.kr)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details, please visit the ACH website.



주소 Address
48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162 Jwadong-ro, Haeundae-gu, Busan 48108,
Republic of Korea

운영시간 Opening Hours
화요일 - 금요일 Tuesday - Friday: 10:00 - 18:00
토요일 & 일요일 Saturday & Sunday: 10:00 - 19:00
월요일 & 공휴일 휴관 Monday & Public Holidays: Closed



아세안문화원은 2017년 9월 개원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opening of the ASEAN Culture House in September 2017, it has been operated by the Korea Foundation.
월간 아세안문화원 2021.11 Vol. 51
등록번호 해운대라 00025 등록일자 2018. 2. 28. ISSN 2714-0849 발행일 2021. 10. 25. 발행·편집인 이근 발행처 아세안문화원
디자인·제작 (주)에이저커뮤니케이션즈 | 월간 아세안문화원 웹진(<https://www.ach.or.kr/achNewsletter>)